

“무민사, 지방문화재로 등재돼야 합니다”

〈武慰祠·최영 장군의 충혼을 모신 사당〉



사진과 나

감만동 김 병 화 응

빛바랜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김병화(무민사 보존회장·91)옹은 감회가 새롭다. 1968년 감만동 주민의 뜻을 모아 무민사(武慰祠)를 개축한 후, 첫 향사를 봉행한 기념촬영 사진이다. 펼친 우산처럼 8각형 기와를 덮은 지붕 아래 서예가 고통주 선생의 현관 글씨가 당당하고, 김응을 비롯한 당시 무민사 개축의 주축인들이 붓발을 배경으로 포즈를



1968년 무민사 개축 행사를 마치고 지역 유지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병화 옹이고 왼쪽 첫 번째가 무민사 개축의 일등공신 고도종 교장.

취하고 있다.

무민사는 감만1동 463번지에 위치하며 최영 장군의 영신을 모신 사당이다. 고려 시대 때 감만포에 수시로 침입한 왜구들을 장군이 섬멸하였기에,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주민들이 장군을 추모하고 공역을 가리기 위해서 이곳에 사당을 세웠다.

하지만 1939년 일본의 민족정신 말살 일환으로 사당은 소실됐고, 기록물들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해방 후 1948년경 지역민들의 성금으로 복구되어 명맥을 유지해왔다. 1968년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건물로 중수된 것이다.

당시 47세이던 김응은 지역 유지들의 부탁을 받들어 무민사 보존회

장을 맡았는데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김 회장은 동향초등학교의 전 신인 배영의숙 11회 졸업생이며 14대째 이곳에서 동지를 틀고 있는 감만동 토박이 향토사학자다. 망백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만탕(목욕탕)을 운영하면서도 무민사 보존과 홍보 일만쯤은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임한다.

그는 장군의 유적비를 건립하고 사당을 지키는 것은 물론 보수공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바닥 시멘트를 화강석으로 교체하였고, 단청작업과 관리동 보수를 시행했다.

“무민사의 가치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인품에 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청빈한 공무원의 본보기가 된다”는 김응은 “무민사가 지방문화재로 등재되는 것이 평생소원이다. 그러면 불려한 진임도로 저절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4월 20일이면 향사를 주관하여 제향봉행을 실시한다. 이

때는 관내 기관장이 제관으로 참여하고 지역민과 최영 장군의 후손 등이 참여하여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제례복은 검은색 도포에 망건을 착용하고 일반제사와 유사한 축문을 읽는다. 이러한 제향은 고려 후기부터 지내온 것으로 추정되며, 제향에 참가하지 못한 주민들도 그 날만큼은 집 앞에 금줄을 치고 심신을 깨끗이 했다고 한다. 조선조 519년과 일본 강점기 때는 향사가 금지되었기에 장군의 위패를 전조대신 자리에 숨겨서 몰래 모셨다는 얘기도 전해온다.

부산지역에는 감만동 무민사를 포함, 수영 무민사, 동구 자성대 최영 장군 비각, 영도 봉래산 신재당 등 최영 장군과 관련되는 역사 흔적이 있다. 김정화 기자

소중한 추억과 역사적인 자료가 될 만한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7-4065

말이 아닌 마음으로 주민 섬겨요

오 록 도 친절 지기

문현1동 제소진 씨



상냥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씨, 빠른 업무는 친절 지기의 표상이다. 문현1동주민센터에는 민원인에게 서비스 정신으로 만족을 주는 공무원 제소진(지방행정서기·33)씨가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근히 중독되게 만드는 묘한 매력 있다. 특히 전화 상담으로 그녀와 통화를 할 때면 통통 튀는 하이트의 목소리가 더욱 더 빛을 발한다. 소진씨는 2008년 10월 공직에 첫 발을 내딛고 현재 공직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다. 문현1동의 주민이기도한 그녀는 매일 출근 할 때 처음 각오를 잊지 않는다.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동료들에게도 편장은 직원이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

밝은 미소 상냥한 목소리 민원 응대
소양 고사 1등, 말은 일은 철두철미

다”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에게 베풀어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심어줘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담당하는 민원인은 화내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에 소진씨는 주민등록 소양고사에서도 1등을 했다고 동료 직원들이 살짝 귀띔한다. 아마도 이런 철두철미한 업무스타일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최정순 기자

박능숙·이수정 기자 책 출간

수필집 ‘돌담’ 소설집 ‘그녀의 검은 가터벨트’



본지 기자 출신 문인들이 잇달아 책을 출간하며 문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박능숙 기자(사진 왼쪽)는 최근 자신의 첫 번째 수필집 ‘돌담(도서출판 한성)’을 출간했다. 215페이지 분량의 수필집에는 작가 특유의 부드러운 서정성이 잘 표현된 작품 50편이 수록돼 있다. 작가는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수필은 지성과 감성으로 버무려 자기만의 색깔로 살아야 하는 탐”이라며 “점성대처럼 큰 뜻을 품은 돌담도 있지만 동네 뒷산의 허름한 돌담도 탐이라는 신정으로 글을 썼다”고 밝혔다.

박능숙씨는 2004년 전북중앙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글쓰기에 나섰다. 이후 에세이문학 겨울호를 통해 등단, 전북중앙신문 문학칼럼을 연재하는 등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현재 부산문인협회 회원과 에세이부산 회원, 부산도서관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처음 쓴 작품이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수정씨가 지난달 단편소설집 ‘그녀의 검은 가터벨트(화남)’를 출간했다.

책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문학평론가 전영태씨는 “생명과 삶을 잔미하는 네가티브 이미지를 능라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평했으며 소설가 방현석씨는 “작품을 읽다보면 어느 순간 남무한 삶의 막다른 골목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추천했다.

등단 10년 만에 더 잘 쓸 자신이 없는 작품들만 골라 소설집에 담았다는 작가는 녹록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투영된 글이 독자들에게 작은 울림으로 다가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정씨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현재 동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200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절반의 무당’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 부산예총회장 등을 맡았다. 윤경희 기자

■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될 터



김철 새마을운동남구지회장(사진 가운데) 등 지회 추축인사 3명이 뉴세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이글 3인 인터뷰

- 김 철 지회장
- 정명길 협의회장
- 박순희 부녀회장

새마을운동남구지회가 최근 소속 단체장을 잇달아 선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김철 지회장은 지난 14일 오후 부산문화회관 연비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회장에 선출됐다.

김 지회장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1년간 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이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감동 깊게 바라봤다”며 “앞으로도 민주시민의 정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뉴세마을운동을 의욕적으로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 3일 구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정명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부녀회와 문고 단체원들과 힘을 모아 지회 발전을 위해 땀 흘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 회장은 또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을 가꾸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협의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취임한 박순희 회장은 “지역과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간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회원 영입을 통해 활기를 불어 넣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부녀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기본 정신에 충실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옥련 기자

■ 사람과 사람

환경과학회 회장 선출



이민규 부경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사)한국환경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 동안 기초과학과 공학분야의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법학박사 학위 취득



정감성 문현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적 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도 수호 대회 참석



김영성 자유총연맹남구지회장은 지난 22일 동구 초량동 정발동상 앞에서 열린 일본 다케시마의 날 기념 정 규탄 대회에 회원 50여명과 함께 참석해 독도 수호의 정당성을 알렸다.

아이디어 공모 대상



안상수(경성대 테레어디자학과 3)씨가 경성대가 지식경제부와 함께 공모한 창의 IT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및 발명캠프에서 ‘Play Wall’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동해참가자미희집

대표: 김성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36-20

단체환영 ☎633-0151

동해미희 참가자미	특대: 100,000 / 대: 80,000
모듬회	중: 60,000 / 소: 50,000
동해식사	특대: 100,000 / 대: 80,000
	중: 60,000 / 소: 40,000
가자미정식	13,000
생우럭탕	10,000
성대구탕(동결기)	13,000
불매기탕(동결기)	6,000

※ 동해참가자미희집
※ 동해미희집
※ 동해미희집

신입 장학생 장학금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동해참가자미희집

조상영 웃음연구소

웃음치료와 유머화법 무료 공개 강의

2월 27일(월) 3월 5일(월)

웃음박사 **조상영** 특별강연 접수중(행사, 연수, 모임 등)

- * 현재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웃음치료과정 지도교수
- * 스포츠서울 2011년 웃음혁신리더 명강사 선정
- * 뉴스메거진 2011년 웃음으로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수강시간안내 (매월 첫 월요일 무료 강좌)

구분	강의 시간
월요일 오전반	오전 10시30분~12시
월요일 저녁반	오후 7시~8시30분

* 특별수강료 1개월 3만원

* 수료증 수여, 웃음치료사 1급, 유머화법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가능 *

조상영 웃음연구소 : 611-3600, 010-4567-2233(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카페명 : 한국웃음치료연구협회 : http://cafe.daum.net/johahahoho)

월리스 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 피부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취업보장 개강 3월초

- 노동부지정 남,여 국비훈련생모집(주간반 야간반)
-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 취업성공패키지
- 부산시청 맞춤형훈련 전액국비지원
- 직장인 국비지원 환급과정
- 일반생 알바주선 병원코디네이터교육 무료 월수강료25만원

대 연 메 디 칼 간 호 학 원
경성대 부경대역 5번 출구 문의 051)637-6601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외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메이크업 등 체계적 교육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